

성경칼럼 요한복음 열네번째 :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의미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다. 다시 보는 성경의 말씀이 오묘하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이야기를 기록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장면을 읽다 보면 단순히 아름다운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심오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조적인 두사람을 만나게 된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 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량' 에 유대인들에게 팔았고 (팔았다고 주인이란 뜻은 아니다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 댓가로 받은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부인했다. 요한은 13장에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인간의 실패를 다룬다. 둘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고 둘다 예수님의 측근에서 활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둘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나같으면 나를 배반할 것을 미리 알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둘을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만 발을 씻어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배반에 대해서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버린 것이나 (마 26:14-16)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에대한 용기를 잃어버려 부인하며 거짓을 범한 것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13:38) 그러나 이 두사람에게는 분명히 다

른 차이가 있다. 하나는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었고 (13:2) 결국에는 그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 활동했다 (13:27) 그러나 다른 하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영혼 속에서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 (21:15-18)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 (13:8)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발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 달라고 간청했다 (13:9)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다. (13:10) 그렇다면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 어차피 누구에게는 목욕이 필요한 상황일텐데 말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수많은 혼동과 착각이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는 풍습은 밖에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 오기 전에 때묻은 먼지를 씻어 내는 중요한 삶의 습관이다. 우리가 매일 세상의 더러운 먼지를 씻어 내는 습관적인 신앙의 행위를 한다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과연 인정 할수 있을까? 반면에 그 한번의 신앙적 행위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목욕한 것이 무의미 해 질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혹시 안수 받은 직분이 나를 깨끗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을까? 평생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닐까? 예수를 알고 믿고 난후 단 한순간도 주의 말씀에 빛나간 삶을 살지 않은 것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일까? 단 한

마디의 거짓말도 속임수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 온 것이 깨끗한 삶을 산 것일까? 무엇이 나를 깨끗하게 한 것일까?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어떤 삶이 깨끗하다고 할수 있을까?

요한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상세히 기록한 의도와 바램이 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후세에 알려 주고 싶었을거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물론 ‘씻음’ 을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이해 할수 있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뜻을 밝혔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13:13-15)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른 다는 것이다. (13:18)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나를 영접 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하는 것’ 이라 말씀하셨다. (13:20)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로인해 하나님을 영접 했다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서로가 씻어 주므로해서 무슨 의미인지 이제 생각할수 있을까?

예수님은 내 발을 씻어 주신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 내발을 씻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

어 주면 된다. 그렇게 행할때 주님이 내발을 씻어 주신 것이 증명 될수 있다. 이 말씀이 깨달아 지니 그동안 살면서 내 가장 측근에서 함께 살아 온 내 아내의 발을 씻어 준 적이 없는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 졌다. 발을 씻어 주는 것을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일상의 죄를 씻어 내는 반복적인 신앙의 고백 행위로 이해하려는 유혹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발을 ‘씻는 행위’ 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신앙적 행위를 넘어선 매일 일어나는 관계적 행위로서 나에게는 매 삶의 순간에서 중요한 결단을 끌어 낸다. 우리의 삶에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의 장애물이 부페 식당의 메뉴만큼 너무도 많다. 그가 우리 생각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려면 겸손하게 삶 앞에 대면하는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발에 더러운 먼지를 씻어 내 주셨듯이 나도 세상을 대면해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씻음’ 이 ‘칭의’ 의 의미로서 법적 효력의 의미로만 강조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행함의 본’ 을 삶의 목록에서 은근슬쩍 밀어 두고 미완성의 신앙적 삶을 살아 가는 것이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나쁘고 악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볼때)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뒤 흔들어 놓기 전에 비록 실패했더라도 다

시 성령의 불씨가 타올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다 인생을 마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누구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할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면 무엇을 망설 이는가? 체면과 허식을 버리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용서, 진실함 없이 형식적으로 드러온 예배와 헌신 봉사에대한 자세, 물질에 사로 잡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빼앗아 온 하나님의 것들, 이해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깨어진 인간 관계, 수없는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남긴 후회의 말과 행동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줄때 예수님이 내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입증하는 경이로운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으로 믿는다. 아멘..!

(이글을 마치고 가장 먼저 평생 나의 측근으로 살아 온 아내의 발을 씻어 주었다)